

제25회 환경의 날 전남교육청, '4대 작은 YES운동' 전개

학교 현장 지속 실천 가능한 환경수업활동 자료 제공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속 가능한 실천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지구 물려주기' 4대 작은 YES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교육청은 4월(목) 환경의 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각급 학교 현장에 네 가지 작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1일 1시간 소등, 엘리베이터 NO! 계단 이용, 모바일 고지서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가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일 1실천 환경홍보 자료를 제작해 환경의 날 계기교육 자료로 일선 학교에 제공했으며, 온·오프라인 1회용품 줄이기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해 환경수업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회·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희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건강한 지구 물려주기' 4대 작은 YES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미래세대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수업을 실시중인 장성 향동중.

장흥교육지원청, 나만의 프로필 만들자

교육공무직학습동아리 장흥동학농민기념관서 첫 모임 본인만의 느낌이나 생각들, 사진·시·토론 통해 표현

일년동안 우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합시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사진이나 시 그리고 토론을 통해 표현해보는 나만의 프로필을 만들어가는 동아리가 되어봅시다.

지난 5월30일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에서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학습동아리 "프로필" 활동이 첫 번째 모임으로 장흥동학농민기념관에서 시작되어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일년의 시간을 다짐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북튜버 강좌'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북튜버 강좌'를 운영한다. '북튜버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부응해 온라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지역 콘텐츠와 연계해 문학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나는야 북튜버!!'라는 주제로 평소 접하

기 힘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책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인 '북튜버' 제작 기법을 배우는 강의로 진행된다.

'북튜버 강좌'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초·중·고학생 20명, 성인 20명을 모집하고, 7월4일부터 8월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대상별로 각각 강연 4회, 탐방 1회 무료 운영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권래용 관장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기법도 배우고, 인문학 경험 확장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광주·전남 도심 가로수 건강 점검

수목진단센터, 향후 3년간 도복 방지 위해 부후 실태 조사 진행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수목진단센터가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올해 6월부터 향후 3년 간 광주·전남과 제주도 지역에 식재된 주요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로수 부후 실태 및 수종별 부후균 조사'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순천대 수목진단센터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폭우와 태풍급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가로수가 도복(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꺾여 식물체가 넘어짐)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것.

따라서 전남과 제주 일원에 식재된 주요 가로수(△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매타세쿼이아 등 (중) 중 매년 2개 종을 선별해 수종별 부후 패턴 및 부후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육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유일한 국립 나무종합병원인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광주·전남과 제주지역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예정 구역의 수목 담당 행정기관에 가로수 식재 현황 정보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번 연구에는 순천대 수목진단센터 외 레임상의인 (유)드림조경나무병원 류성호 원장과 (주)솔피나무병원 이대선 원장 등 수목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연구는 수목의 생육상태에 맞춰 매년 10월 이전에 지역별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시기와 육안검사를 통해 부후가 진행되고 있는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생육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부후 실태와 진행패턴 및 부후균을 채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순천대 수목진단센터는 조사 결과 도복의 위험이 있는 나무는 지역별 관리기관과 협조해 사전 예방 조치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보고서와 논문으로 작성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리플렛 홍보자료를 제작해 수목진단 및 안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 건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대학교 김경희 수목진단센터장은 "가로수는 도시에 숲을 구성해 시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가로수 부후 연구는 공공의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가로수 안전관리 및 수목 건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진단·관리법을 전수해 지역사회가 생활권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전남교육청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직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해진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동참하고자 3일(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도교육청 직원 50여 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확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 청계면 농가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함께 했다.

해당 농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직접 양파 뽑

기 작업에 참여해 주고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 주셔서 힘이 솟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을 격려 방문한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더욱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